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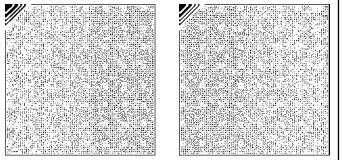


#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6월 266호

(02) 796-4280 www.kapp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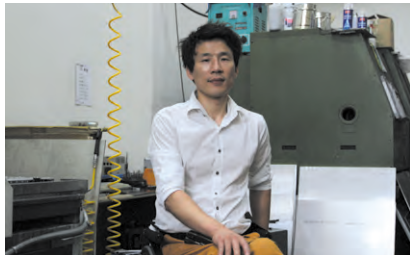
**3 뉴스**  
한·미·일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12 특집**  
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람기



**14 보조공학**  
국내 유일 휠체어 맞춤 제작  
'휠라인' 금동욱 대표



**16 인물**  
어제보다 강한 오늘  
이건희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



## 제8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한국대표단, “SDGs 수립 및 이행에 장애 포괄해야”

한국장애인대표단(이하 한국 대표단)은 6월 9~11일에 뉴욕에서 열린 제8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이하 당사국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장애계에 의미 있는 제언을 던졌다.

이번 당사국회의는 올 9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이하, SDGs) 채택을 앞둔 시점에 열려 이목이 쏠렸다. 회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을 비준한 154개국의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 개의 전 세계 네트워크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사이드 이벤트 50여 개를 치열하게 진행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SDGs의 개발 목표 중 빈곤 이슈에 장애를 포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 활동과 장애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정보 구축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표단은 UN 본부의 회의장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 한국대표부와 공동 주관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과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 건설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

사이드 이벤트는 김형식 UN



제8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전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UN CRPD 당사국회의 의장인 오준 대사, UN 경제사회국(DES) 아키코 이토(Akiko Ito) 대표의 환영사를 비롯해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UN 대사인 오드리 웹슨(Audrey Webson),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안트 홀트(Amt Holte) 회장, 세계재활협회(RI) 비너스 일라간(Venus Ilagan) 사무총장이 중점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한국대표단은 SDGs의 중점목표 9번(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시설 및 산업화 구축, 혁신 장려)과 중점목표 17번(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편의증진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통한 어매너티 소사이어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현근 국장은 '한국의 장애인 현황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개', '한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법안의 변화와 발전현황',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CSV, criterion suitability verification)', '편의시설에 관한 어매너티 개념의 이해와 사회변

화에 대한 제언'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장애인 편의증진 제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밖에도 동일 사이드 이벤트에는 '한국과 아태지역 개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IT챌린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비전', '한국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정보접근성 인증제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열띤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6월 9일 오전 UN 본회의장에서 '지속가

능한 개발목표에서 여성장애인의 주류화'를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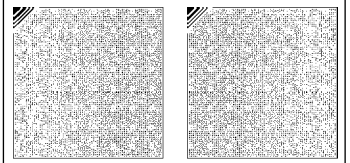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유명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UN SDGs가 여성장애인이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각 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뿐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의 12개 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밀알복지재단, 장애인법연구소, (주)웹와치)는 지난 2달 동안 세미나 및 자체 교육, 시뮬레이션 회의를 진행하며 이번 활동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SDGs의 목표 채택에 있어 장애 이슈 포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전 세계에 배포해 한국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한국대표단은 국제 협력을 위한 공동 연대를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지장협, 네팔 지진피해 지원

## 네팔지장협에 후원금 및 물품 발송



네팔지장협이 카트만두에서 지진피해자를 애도하며 복구를 기원하고 있다. ©네팔지장협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 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네팔 지진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지장협은 6월 24일 약 200만 원 상당의 후원금 및 물품을 네팔지체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Physical Disabled-Nepal, 이하 네팔지장협)에 발송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지진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이번

후원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네팔지장협 기탄 쉴파카(Mr. Kiran Shilpakar) 회장은 “한국 장애인들의 지원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네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후원금과 물품은 재난에 취약해 더 큰 피해를 본 지체장애인들의 피해복구와 재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네팔지장협에 따르면 대지진으

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장애인들과 부상자들이 목발이나 보행기,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거의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뿐 아니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돼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에 빠져 있다고 알려졌다. 생존을 위한 텐트나 침구, 음식도 모두 부족한 네팔에 지장협은 의류, 수건 등 생필품 1000여 장도 발송했다.

향후 지장협은 국제연대활동 차원에서 꾸준히 네팔을 격려할 예정이다.

## 장애인 지도자, 셀프이미지 아카데미

### 전북지장협 60여 명 역량강화 교육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근, 이하 전북지장협)는 장애인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셀프이미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전주시 소재 풍남관광호텔에서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열린 이번 교육에 전북지장협 소속 14개 시·군 지회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특강을 진행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원칙과 신의를 지키며,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형근 협회장은 “지도자와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



‘셀프이미지 아카데미’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성 강화는 물론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대피 교육도 펼쳐졌다. 완산소방서에서 나와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했고, 장애인 지도자들은 실습모형

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재난대비의 의지를 다졌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송경주 부장이 회계 강연을 진행했고,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의 진실’을 주제로 정보를 전달했다.

## 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 경찰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요구에 법규 개정 약속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 개조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법규 개정 약속을 받았다고 6월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담당 경찰서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돼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농아인, 수화언어법 제정 요구

###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요구서 전달



농아인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500여 명은 6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화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아인의 날을 맞아 국민들과 정치권에 수어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여야 간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등 수화 관련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2013년 발의 이후 교문위원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협회 측은 “우리사회에 수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고용, 지역사회 참여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로 인정하고 농아인들을 위한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여의도 이룸센터를 출발해 인근 새누리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후 국회 교문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 한·미·일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 존 워다치, 장애인당사자가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미국, 일본, 한국의 장애인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6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각 나라의 장애인법 정책과 과제를 논의했다.

### 미국, 장애 친화적 환경 변화가 차별 장벽도 해제

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장이었던 존 워다치 변호사는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장애인법을 소개했다. 그가 장애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미국 장애인의 현실은 암울했다. 접근 가능한 건물이나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고, 장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질 낮은 특수학교에 다녔다.

존 워다치를 비롯해 장애인의 권리가 인권이자 시민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1973년 「재활법」과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장애인교육법(IDEA)」을 만들었다.

재활법이 제정된 지 40여 년, 미국장애인법인 제정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는 달라졌다.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 관공서,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체인 레스토랑, 은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 병원, 쇼핑몰, 대학, 교도소까지 쉽게 드나들 수 있다. 교통은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연석경사로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하철과 철도에 접근이 용이하다. 의료는 병원에서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존 워다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태도의 장벽도 사라졌다”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에 정부가 나서고, 민간기관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당사자들은 법률 제정 전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 실체법은 제정했으나 구제 시스템 아직 없어

전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담당실장이었던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제도 개혁과 성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1년 ‘의료모형에서 사회모형으로 장애인복지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기본법」을 개정했다.

2012년엔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하며 대상자에 신체,

정신, 지적장애 외에 특정 난치병 환자도 포함했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중증신체 장애인 외에도 중증 지적 혹은 정신장애인까지로 확대했다.

2013년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법정 고용률의 산정기초대상에 정신장애인을 추가했고, 「장애인차별해소법」도 제정해 장애인 권익 보호 의무를 포함했다. 그러나 토시히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체법은 만들었으나 구체화된 구제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정이나 법원 이외의 구제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을 구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높여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한국의 장애인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발표했다. 염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이 장애로 인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각 지역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 면제 또는 경감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 염 변호사는 ▲장애등급제 전면개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권리 옹호 및 학대예방법」 제정 ▲탈시설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전략 개선 ▲최저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등급제, 중증·경증 단순화

### 서울 노원구 등 6곳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월 20일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6단계인 장애등급을 2017년 하반기부터 중증·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여부는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후 정책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

서비스의 총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장애등급 적용 배제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장애인연금은 중·경증으로 개편되더라도 현행 수급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또 복지부는 기존 장애등급제에 전체적으로 적용해 온 의학적 장애기준의 개편 방안도 함께 밝

혔다. 장애인연금 및 주차표지 등과 같은 서비스는 그 특성에 맞도록 의학적 장애기준을 적용한다. 그 밖에 활동지원, 발달재활 등 복지욕구와 일상생활 능력에 연계된 서비스는 의학적 장애 평가 기준이 아닌 별도의 서비스 판정도구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기본 틀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낙인을 찍는다는 점과 의학적 장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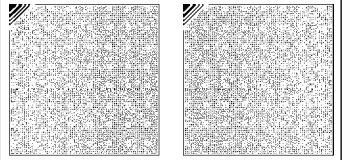
급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정부가 이번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화로 방향을 잡은 주된 이유는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감면·할인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등급제를 폐지하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껴 아예 감면·할인 서비스

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해 9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총 6곳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전북 완주군, 인천 남구, 충남 천안시, 부산 해운대구다.

이들 지자체는 6개월간 장애인 서비스판정 및 전달체계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2차 시범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 한국장애학회 창립 학술대회 첫걸음

## “장애를 다양함의 일종으로 보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겠다”

“장애 관련 학문에서 장애인은 감정과 의지를 갖춘 개인이라기보다는 분류되고 관찰되는 대상일 때가 더 많았다.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를 다양함의 일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모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국장애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가 이 같은 설립취지를 밝혔다.

5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학,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150여 명이 모여 장애학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장애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장애에 관한 학문 역시 홀대받았다.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주제는 모든 학문에서 활발하게 다뤄진 적이 없었으며, 다뤄졌다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였다. 그 분야 역시 의학,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에 한정됐고, 그 속에서 장애인은 수정되고 치료받아야 할 존재로 치부됐다. 장애학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조한진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학회의 지향점으로 ▲전통적 의료모델을 넘어 진보적인 연구·개입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 ▲역사적 맥락에서 장애를 연구할 것 ▲문화, 예술, 사회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접근법과 통합



한국장애학회 창립 학술대회 전경.

할 것 ▲장애인을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조 교수는 “한국장애학회가 장애 관련 서비스와 제도 면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협력해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장애학 연구를 활발하게 발전시켜 온 영국, 미국, 일본의 흐름을 각각 호남대학교 강민희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지혜 선임연구원, 광주대학교 정희경 교수가 소개했다.

영국의 장애학은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사회의 차별을 읽고 분석하며 발전했다. 당사자를

제외한 비장애 전문가들의 독점 영역이었던 사회를 비판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회운동 성격을 보였다. 초기에 차별 경험을 강조하는 연구내용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 제도와 사회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술영역에서도 새로운 시도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미국의 장애학은 1970~80년대 활발하게 일어난 소수자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흑인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그들의 저항전략이나 인권운동의 방식을 배워 사회통합 운동을 전개한 결과 1973년 재활법 개정을 얻어냈다. 이들의 운동은

법 제정과 함께 학문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장애학은 기존의 의학과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둔 학문에 장애관의 변화를 시도하는 학문적 변화운동으로 태동했다. 이후 장애학은 미국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조인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 수행으로 발전했다.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 풍토와 밀접해 개인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두는 접근방식을 보이는 특이점도 있다.

전지혜 연구원은 “미국의 장애학은 저항성을 지키면서도 실용적 차원에서 보조공학기술 영역 등 다양한 분야와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한국

의 장애학이 기존 학문과 어떤 융합을 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의 장애학이 장애인운동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지만, 일본의 장애학은 장애인운동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성장했다. 일본의 장애인운동은 1970년대부터 탈시설을 외치며 성장했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연구가 부족해 그 성과를 장애학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장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일본 장애인운동이 장애학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일본의 장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일본 장애학의 특징은 일본 장애인운동만이 주장하고 논의해 온 주제가 있다는 점이다. ‘장벽으로서의 가족-탈가족’, ‘능력주의’, ‘페미니즘과의 대립’,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끌려 다니는 현상을 비판한 ‘수족론’ 등이 있으며, 인문학적 연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과학적 장애학에 가깝다.

정희경 교수는 “일본이 인문학적 장애학을 소외시켰다기보다는 장애학회에 인문학적 연구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막 탄생한 우리나라의 장애학회는 인문학과 사회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

### 전자바우처 발급 기간 14일 이내로 단축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용자와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결정 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해 이용자들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전망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자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제공기관의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 신고가 아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 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 기준

을 정해 평가 방향을 규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 개가 지역 자율형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이용자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체계화했다.

그 외 제공자 자격 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 기간 및 청구액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필요

## 시혜 아닌 보편적 관광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혼자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230명(지체 120명, 시·청각 각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서 각각 87.4%와 88.2%가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국내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이, 해외는 비싼 비용(65.0%)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또 이들 중 80.8%가 “장애인용 여행상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관광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와 한국근육장애인협회(회장 정영만)가 ‘접근 가능한 여행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월 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이봉구 교수는 “접근 가능한 관광은 관광 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사람의 관광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접근 가능한 관광 활성화



이룸센터에서 ‘접근 가능한 여행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화를 위한 과제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은 관광할 때 터키나 움푹 파인 인도 같은 사소한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관광하고 싶은 열망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무장애 관광자원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광 접근성 인증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여행자에게 차별 없는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접근성 심의위원회를 구

성해 교통약자의 관광 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현장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접근성 인증서 및 명판을 교부해 여행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토론자로 나선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는 “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문화적 권리는 여행”이라며 “동정이나 시혜적인 일회성 관광이 아닌 보편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작가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

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확보, 숙박업소 신축·개축 시 편의시설 의무 설치, 개방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정자와 야외 테이블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작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장애인 관광 관련 책자를 토대로 여행하다가 낭패 본 경험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여행 코스 개발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

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 융합연구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접근 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없다”며 “민간 관광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모델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관광으로 2009년 1~6월 사이 10억 파운드(약 1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정병욱 국민관광복지팀장이 참석해 ‘접근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알렸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는 6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이곳들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0월까지 열린 관광지별로 맞춤형 개보수를 지원하고 11월 나눔 여행을 할 예정이다. 이들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장애인복지서비스,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

### 오제세 의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대”

앞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계획 수립부터 제공까지 모든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

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업무 일원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6월 8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현금·현물급여, 세금감면 등 80여 개 이상의 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장

애인이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계가 안 되거나 서비스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오제세 의원은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과정을 간소화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적장애인이 읽기 쉬운 문서 만들기』 발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는 영국의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이 발간한 도서를 의역해 『지적장애인이 읽기 쉬운 문서 만들기』를 발간했다.

지적장애인은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해 언어습득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교육, 고용, 재정, 건강,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적장

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관련 서비스 제

공기관은 정보제공 의무를 지고, 정보 접근 보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 지원 도구 개발,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기준과 방

법에 대한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측은 “이번 안내책은 지적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정보제공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www.kaidd.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장애인복지, 학문과 실천의 융합 모색

## 우상화된 이론, 매너리즘에 빠진 실천을 넘어

장애인복지의 학문과 실천간 융합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5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연구와 현장의 순환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로 나선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교육은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은 늘 깨어 있으면서 원하는 인재상을 요구하고 연구에 대해 고민과 질문을 제기하는 민감한 주문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융합을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 교과과정에서 장애 관련 과목은 장애인복지론이 유일하다는 점을 짚어, 사회복지사는 과연 장애인을 아는 전문가인지 의문을 던졌다. 장애인복지론을 분절된 과목으로 공부하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론이 사회복지조사론, 행정론, 정책론 등 다



이룸센터에서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른 필수 10과목에 어떻게 투영되고 실현되는지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의 경우 지금까지 서구의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 우리 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검증 없이 현장에 단순히 전달하거나 쏟아붓는 형국이었다고 꼬집었다. 물론 외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조각조각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충실

히 반응하고, 그 고민을 연구 주제로 선정해 성과를 다시 돌려주는 연구문화를 형성했는지 반문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구자들이 구체적이며, 겸손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힘든 상황에 봉착한 현장의 현실에도 초점을 맞췄다. 현장은 모두 바쁘다. 시설 평가를 준비하며 몇 개월씩 야근

을 하는 게 예사이며, 장애패러다임의 변화된 요구에도 맞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괄목하게 높아진 장애인 이용자의 기대에 맞춰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현장에 대해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이야기하는 게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 교수는 “점점 깊어지는 매너리즘으로 빠져들기 전에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장애패러다임, 현장의 서비스 지향, 실무자들의 인식과 지식, 서비스 평가기준 등에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장애인 이용자들은 단순히 도움만 받는 것보다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시대”라면서 “자립생활·서비스 현금지급·개인예산제 등이 안착화되면 지금의 경직된 경계를 허물어 현장의 전문가들이 더 창의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이 모든 변화는 대학 교육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천 도구를 사회복지사의 손에 쥐어줄 수 있을 정도로 대학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SRC보듬터 이승민 원장은 “교육·연구와 실천이 지속적인 연계성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존 산학협력이 취업이나 실습을 위한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희망충전' 포스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장고협, 7월 1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가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희망충전'을 개최한다.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인 장애인

당사자들을 패널로 초대했다.

이날 김희아 작가, 김용우 무용수, 서원선 박사 등이 강연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장고협은 참가자들에게 취업 고민 등을 사전 접수받아 패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kesad.or.kr](http://www.kes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kesad@naver.com](mailto:kesad@naver.com)), 팩스 (02-754-1717)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고협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화(02-738-4504)하면 된다.

## ‘UCC, 포스터가 세상을 바꾼다’ 공모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7월 31일까지 접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UCC, 포스터가 세상을 바꾼다’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UCC

부문 ▲시혜나 동정적인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주제 ▲기타 장애인의 인

권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포스터 부문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염전노예사건 등)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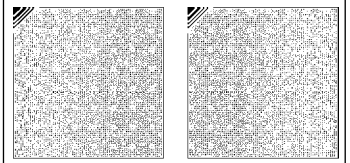
권상담전화 1577-5364 ▲기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및 차별금지법 관련된 주제 등이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참가 자격은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15775364.or.kr](http://www.15775364.or.kr)) 또는 황은선 간사(02-2675-8153/070-7733-0361)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450만 원으로 UCC 부문 1등 15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이다. 포스터 부문은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이다.

최종 선정작 발표는 10월 중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상영회 및 전시회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인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 종합우승 부평구지회 차지



인천지장협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제14회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가 5월 21일 남동공단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임순봉, 이하 인천지장협)와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안상수 대표)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해 인천지

역 10개 군·구지회장과 회원 및 가족 1500여 명이 모였다. 외빈으로는 조명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웅수 인천교육청 부교육감,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해경 관현악단의 신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사랑댄스홀릭 밸리댄스팀과 두드림 풍물패 공연 및 여러 가수들이 축하 무대를 장식하며 축제의 막을 올렸다.

대회 시작에 앞서 모범장애인과 모범학생, 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하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천 지역 선수들에게 격려금

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지역별로 팀을 이뤄 피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8가지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부평구지회가 차지했다. 부평구지회는 단체전 피구, 개인전 만보기와 춤, 홀라후프 종목에서 1위에 올라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어서 준우승은 서구지회가, 공동 3위로는 계양구지회와 동구지회가 올랐다.

한편 체육대회의 마지막 경기인 휠체어 혼합계주 시작 전 최고령 핸드사이클 선수인 유완균 선수가 핸드사이클 시범을 보여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순봉 협회장은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대회 소감을 밝혔다. 또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이를 조성하는 환경이 만드는 것”이라며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장의 부대행사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상담과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의 협력업체들이 무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해 참가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 중앙아시아 고려인 돕기 보장구 기증

### 김포시지회, 목발 100조 키르기스스탄에 보내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보내는 보장구 기증식이 열렸다.

지난 6월 3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는 고려인 돕기 기증식을 열고 국내에서 제작한 목발 100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조재현 김포

보건소장과 신경란 과장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2년 전부터 공연과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시공사 김명석 대표, 전통문화예술연구소 노현숙 총무이사, 김포 수병원 박수현 원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김포시지회가 기증한 목발은 현지의 한국대사관이 받

아 키르기스스탄 복지부에 전달한다. 키르기스스탄 측은 고려인을 포함해 형편이 어려운 현지인들에게 목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김포시지회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을 돕는 취지로 휠체어를 모아 기증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포시지회가 키르기스스탄에 목발 100조를 기증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는 1930년대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고려인 동포 50만 명이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으며 살아온 동포집단이다.

## 장애인 고회 효도잔치 열려

### 안양시·군포시지회 고령 장애인 격려

(회장 안희진) 김빛하나 씨의 부채입춤과 안희진 회장의 창부타령, 정부순, 박미선, 김민정, 김양레 씨의 만고강산 양산도 뱃노래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본격적인 잔치는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안양시지원센터 최덕현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례, 주빈 입장, 주빈 소개, 헌주, 가족대표 인사, 합동 헌주, 어버이은혜 합창, 주빈 선물증정식, 케이크 점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기호 경기도지

체장애인협회장과 이진호 안양시부시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들의 고회를 축하했다.

이어서 군포시지회(지회장 이광현)는 5월 27일 제1회 군포시 장애인 고회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효도잔치에서 이광현 지회장은 ‘그리운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자작글을 낭독했고, 양지의 집 양지하모니합창단은 ‘어머니 은혜’를 부르며 공경하

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광현 지회장은 “처음으로 효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행사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각 지회장과 이학영 국회의원, 시의원 및 관련 단체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에스톤하우스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과 서비스를 후원했다. 또 경기헤럴드 천홍규 부사장, 정귀숙 이사와 허은아 이사, ㈜오텍, ㈜한빛구조엔지니어링, 연주테크(주), 돌doll한복도 행사를 후원했다.



안양시지회가 진행한 고회 효도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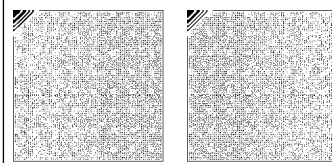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고령 장애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고회 효도잔치가 열렸다.

먼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지회장 강명선, 이하 안양시지회)는 5월 26일 안양시 동안구 라프로메사 웨딩홀에서 제9회 안양시 장애인 합동고회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내 외빈 및 하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칠순을 맞은 장애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합동고회잔치는 안양시지회가 2007년부터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슬하에 자녀가 없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노인 장애인 7쌍을 초청했다.

식전행사로 안양소리보존회



# 전북 · 강원 장애인종합예술제

## 장애인과 가족, 학생 등 기량 겨뤄



제12회 강원도장애인종합예술제 무대.

전북과 강원에서 각각 장애인 종합예술제가 열렸다.

먼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

장협)는 5월 20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제28회 전라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가족, 학생 등 2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각각 그림, 글짓기, 사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형곤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예술이 가진 창의와 상상의 힘은 무한하다”며 “우리 내면에 잠재된 예술적 본능을 승화시켜 장애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전환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제 심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해 심사에 공정성을 기했다. 각 부문 대상은 글짓기 부문의 경우 부안의 최은애, 사진은 전주의 박경노, 그림은 부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소

속 김순애 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어서 5월 22일 제12회 강원도장애인종합예술제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렸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흥수, 이하 강원지장협)가 주최한 이날 예술제에는 300여 명의 참가자가 글짓기와 그림, 서예, 음악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김흥수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참가자들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종성 강원도경로장애인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글짓기 부문은 철원의 백광륜, 그림은 강릉의 김지영, 서예는 홍천의 함영인, 음악은 인제의 김미애 외 9명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번외로 펼쳐진 노래자랑은 철원의 김경남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별 수상자들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8회 전국장애인예술제에 지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 포항시, 장애인 복지택시 차량 기증

### 포항시지회, 중증장애인 이용 최적화된 신규 차량 완비



포항시가 포항시지회에 장애인 복지택시 차량을 기증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와 포항시는 5월 29일 ‘포항시 장애인 복지택시 차량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상석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지회 임직원 및 일반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

했다.

이날 포항시는 4,0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수송 전용 리프트차량 1대를 포항시지회에 기증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 제공을 당부했다.

현재 포항시지회에서는 복지택시 2대를 연중 상시운영, 연간

3,000건 이상의 중증장애인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

이상석 과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신규 차량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포항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5월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수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시지회에 신규 리프트 차량을 기증한 바 있다. 이로써 포항시지회에서 운영하는 2대의 복지택시 모두 중증장애인 이용에 최적화된 신규 차량이 완비됐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 충남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단속과 홍보계도



충남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남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단장 이견휘, 이하 충남촉진단)이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충남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328개소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조사와 불법주차 단속, 홍보계도로 진행했다.

충남촉진단은 합동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우수관리 시설과 부실관리 시설을 정리했다. 부실관리 시설주에게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충남촉진단은 올해 ‘당신의 배려가 아름다운 주차구역을 만듭니다’라는 홍보 문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 김천시지회,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A등급

### 중증장애인 대상 전등리모컨 스위치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2014 신청사업으로 실시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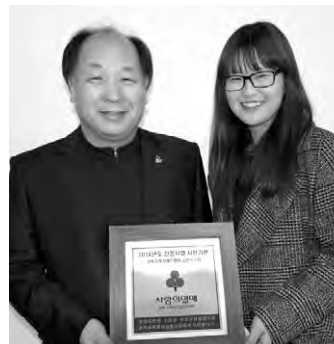
등리모컨 스위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김천시지회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등리모컨 스위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사업’을 신청해 공동모금회로부터 768만 원을 지원받았다. 자부담 230만 원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수혜자들은 김천시지회가 설치한 편의시설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고, 이차적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고 밝혔다.

박선하 지회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80가구가 혜택을 입었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사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천시지회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A등급을 받았다.



# 장애인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 “기본에 충실하고, 지조를 지켜라”

경북에서 장애인지도자들이 모여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지난 5월 28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5 장애인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시·군지회장, 복지관장, 여성자립지원센터장 등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강연을 들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강의에서 “지장협의 지도자라면 정관을 숙지하고 원칙에 충실하며, 지조를 지켜야 한다”며 기본을 강조



장애인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기념 촬영.

했다.

강의 후 지도자들은 경북지장

협 김대환 수석부협회장의 선창

아래 5.28 선언문을 낭독하며 새

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낭독한 5.28 선언문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중앙회 및 도협회와 지회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 경북지장협 지도자들은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 섬김과 배려의 정신으로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지장협이 장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한다. ▲우리 경북지장협 지도자들은 오늘의 선언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간다.

##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제도

### 문경시지회, 불법주차 민원 장소에 집중



문경시지회가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제도를 펼쳤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흥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문경시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제도를 진행했다.

이들은 5월 14일 홈플러스와 GS슈퍼마켓, 공용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불법주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쳤다.

문경시지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문경시지회는 앞으로도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부당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대모비스, 아산장복에 투명우산 기부

현대모비스 직원의 선행이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에 전해졌다.

아산장복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온 현대모비스 직원 유정곤 씨가 6월 5일 아산장복 이용자들에게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우산을 전달했다.

유정곤 씨는 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평소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본인의 회사인 현대모비스에서 투명우산 나눔 활동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신청해 선정됐다. 유 씨는 바라던 대로 아산장복 장애인들에게 우산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창호 관장은 전달식에서 “투명우산을 나누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까지 닿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투명우산 나눔 활동은 현대모비스가 비 오는 날 어린이와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대모비스 직원 유정곤 씨가 아산장복에 투명우산을 전달했다.

##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 기관 지정

### 달구벌장복,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생명 보호



달구벌장복이 응급안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독거노인 136명, 중증장애인 223명이다.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와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서비스로, 취약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달구벌장복)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지역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달서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독거(치매)노인과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1·2급

달구벌장복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대책 장비 총 7종을 설치했다. 상시 인력이 모니터링, 정기적 안전 확인, 장비 점검을 진행하고, 응급상황 알릴 시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공조해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 제8회 두리하나 건강걷기대회

## 용인시민 2000여 명 참여 성황

용인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염원하며 길을 걸었다.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치인장복)은 5월 23일 용인시청 광장 및 일원에서 용인시민과 함께하는 '제8회 두리하나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시민 2000여 명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두리하나 되느! 사람들의 용인!"을 함께 외치며 용인시청 광장을 출발했다. 참가자들은 약 2.4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제8회 두리하나 건강걷기대회 기념 촬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

민하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기원하는 발자국을 힘껏

찍었다.

이날 3군 사령부 군악대와 의장대가 공연을 펼치며 걷기대

회를 축하했다. 부대행사로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두리하나 어린이 그림대

회',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한 장기자랑대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다양한 공익캠페인이 펼쳐져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의철 관장은 대회사를 통해 "두리하나 건강걷기대회가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로 8회째를 맞이하게 돼 감사하다"며 "올해 개관 10주년인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뿐 아니라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사회통합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영천장복 보장구 수리 서비스

###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은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6월 4일 영천장복 주차장에서 열린 이번 점검 서비스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북도협회와 연계해 진행했다. 이날 보장구 고장과 노후한 소모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 장애인들이 점검 서비스를 받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 자리에서 이제근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 자원



영천장복이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계를 통해 보장구 수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며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

### 달성장복, 수급자 40명 대상 강의



달성장복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5월 28일 열린 교육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4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성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및 관리방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 곡성장미축제 나들이

### 색깔 있는 여행, 여행을 통한 회복



정읍장복이 곡성장미축제 나들이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정읍시 장애인들이 제5회 곡성장미축제가 열린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으로 꽃구경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정읍시장에 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이 장애인 및 가족,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과 함께 '색깔 있는 여행, 여행을 통한 회복'을 누리하고자 기획했다.

여행 참가자들은 섬진강기차마을 1004장미공원에서 기획행사로 펼쳐진 '천만송이 세계명품장미'를 보며 색깔이 다른 자태를 뽐내는 장미꽃 앞에서 탄성을 자아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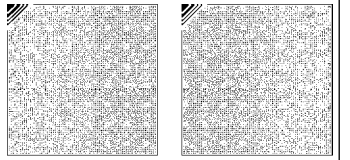
다.

한 참가자는 "예전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좋아져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장애 친화적인 관광지가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을 추진한 정읍장복 관계자는 "여행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해 재충 동기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더 활발히 권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나들이와 캠프 등 여행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달성장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자 의무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의 수급자로서 올바른

이용자세를 갖춰, 활동보조인이나 제공기관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아동과 부모의 봄나들이

## ‘어제와 내일 사이에 더 특별한 오늘’

장애아동과 부모의 특별한 봄나들이가 펼쳐졌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상구, 이하 성남장북)은 5월 27일 장애아동과 부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지역사회 기업 포스코 ICT의 후원 진행된 이번 나들이는 총 120명이 함께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편성하지 않고 각각 장애아동-자원봉사자 그룹과 부모 그룹으로 분리해 진행했다. 장애아동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기구를 타며 여가를 보내고,



장애아동과 부모의 에버랜드 봄나들이 기념 촬영.

부모는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나들이하는 하루 동안 에버랜드에는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

하는 장애아동과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모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했다.

오랜만에 개인 시간을 보냈다는 한 어머니는 “몇 년 만에 놀이공원에 온 지 모르겠다”며 “날씨도 좋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함께 한 포스코 ICT 직원은 “순수한 아이들 덕분에 덩달아 순수해진 느낌이었다”며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장북 측은 “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포스코 ICT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 장애인복지기금 마련 바자회

### 진천장북, 제1회 나눔&모금 day



진천장북이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었다.

진천군 주민들이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월 29일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북)이 개최한 ‘제1회 나눔&모금 day 바자회 및 일일호프’에 지역 주민과 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돕기에 동참했다.

진천장미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바자회는 생활용품, 의류, 화분, 잡화 등 지역 업체에서 후원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유용한 용품들과 함께 분식·훈제 치킨 등 먹을거리도 주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주민들은 물건이나 먹을거리 구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게 기부했다.

이 자리에서 덕산색소폰동호회의 미니콘서트와 우석대학교 학생들의 뮤지컬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네일아트와 목공예체험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한명수 관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청정 진천의 우수 농산품도 널리 알리고, 지역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뒀다”며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진천자유총연맹과 진천장미로타리 회원들과 지역의 후원업체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생활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시원한 옷으로 여름 나세요”

괴산동진로타리클럽, 괴산장북에 여름옷 기증



괴산동진로타리클럽이 괴산장북에 여름옷 200벌을 기증했다.

지난 6월 10일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에서 괴산동진로타리클럽(회장 양정숙)의 후원물품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후원물품은 괴산동진로타리클럽 진금순(자영업) 회원이 기증한 여성 옷 200벌로, 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배려심이 깃들여있다.

진금순 회원은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이 시원한 옷차림으로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효선 관장은 “지역 장애인의 더위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어 감사하다”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신체나이는 내리고, 건강은 올리고

### 김천장북, 장애인 전용 요가교실 개강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태)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가교실을 개강했다.

6월 1일 복지관 강당에서 시작한 요가교실의 이름은 ‘신체나이는 내리고, 건강은 올리고’로, 박옥희 강사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1 지도에 나섰다.

박 강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요가교실을 통해 운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연성 향상과 근력 강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굳은 근육을 풀도록 돕고 있다.

교육을 받은 한 장애인 이용자

는 “장애로 인해 굳은 근육을 풀어 시원하다”며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해소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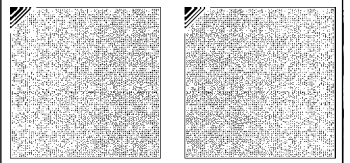
이번 요가교실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장북에서 진행되는 요가교실에서 장애인들이 동작을 맞추고 있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 편의시설 관람기

## 세계 최강, 미국의 편의증진 정책의 현실은...

장애인 편의증진 업무를 맡은 지 10년이 넘어선 지금에서야 ADA(미국장애인법)와 ADAAG(미국장애인법에 따른 접근성가이드라인)의 본고장인 미국의 편의증진 정책의 현실을 볼 기회가 주어졌다.

제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한국장애인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중요한 장애 이슈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선진문물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비행기를 탔다. 장장 10,500km 거리, 1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JFK공항에서 미국 입국수속을 밟아 대합실로 나갔다.

이런! 첫 순간부터 기대 이하의 느낌이다. 규모나 노후화 정도가 인천공항에 비할 바 없이 초라해 보였다. 뉴욕 맨해튼의 숙소로 가는 길가의 모습 역시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돌아본 미국 동부의 뉴욕주,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등 위주로 평가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왜 그런지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관람기를 정리해 본다.

< 관련사진 ① >

##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것

먼저,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편의시설들이 눈에 띄었다. 장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의 수직손잡이, 소변기와 세면대 손잡이가 없다. 아마 관련기준이 없는 듯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없다. 특히 건물 내부의 주출입구 전후면, 계단 시작과 끝 지점, 승강기 호출버튼 앞 및 남녀화장실 구분표지판 아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을 비롯해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었다.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점자블록의 색상과 모양을 보면 도무지 감피를 잡을 수 없었다.

보도에는 임시가설물 같은 장애물이 종종 있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심결에 부딪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물이 곳곳에 존재했다.

< 관련사진 ② ③ ④ ⑤ >

## 주출입구, 장애인 접근 철저히 지켜

위와 반대로 철저히 감시되고 운영되는 것이 있다.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높이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단 차이를 제거했다. 그것이 수백 년 된 건물이든 최신식 건물이든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는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 한다.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우회해 측면이나 건물 뒤편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입문은 여닫이문이라도 자동문으로 설치된 곳이 많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 일반주차구역은 만차 수준이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

있었다. 단속될 경우 벌금이 무거우며 곧바로 견인 조치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비워둔다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의 발로라는 생각이 든다.

< 관련사진 ⑥ ⑦ ⑧ ⑨ >

## 유니버설 디자인 탄생의 배경

오래된 건물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왜 미국에서 탄생했는지를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욕실에 배수구가 없다.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를 여행해 본 사람들은 많이 느꼈을 것이다. 세면대의 수도꼭지, 욕조의 샤워기뿐만 아니라 삼푸를 짜서 머리를 감을 때조차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비장애인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몇십 배 더 힘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를 타파하고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출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본다.

끝으로 이번 미국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편의증진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세계에 전파해 전 세계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장벽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꾼다.

< 관련사진 ⑩ 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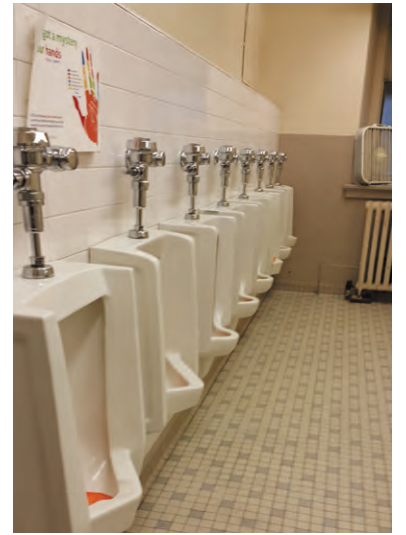
① 주출입구문 전후 점형블록이 없는 JFK공항



② 대변기의 수직손잡이 없음



③ 세면대의 손잡이 없음



④ 소변기의 손잡이 없음



⑤ 색상이 통일되지 않은 점자블록



⑥ 예일대학교 로스쿨 건물 후면 경사로



⑦ 자동문으로 설치된 여닫이 출입문



⑩ Pull &amp; Push 구조의 수도꼭지



⑧ 뉴욕주 버팔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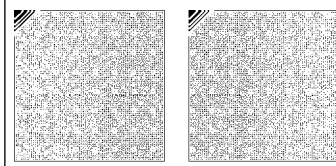
⑨ 만차 주차장에서 비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⑪ 반드시 두 손이 필요한 구조의 샴푸 뚜껑



소리로 읽는 새보람



# 휠체어 장인 금동옥 대표를 만나다

## 국내 유일 휠체어 맞춤 제작 업체 ‘휠라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추기 위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내 몸과 상태에 맞춰 조절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보조기기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까지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다. 본지에서는 자체 개발 및 디자인으로 출사표를 던진 국내 휠체어 업체가 있어 취재해 봤다.

### 절망 끝에서 발견한 희망

“도와주세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길을 지나던 청년은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우려 달려가 과한을 막아섰다. 가까스로 그녀를 구해냈지만 청년은 과한의 흥기에 찢려 하반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그 청년이 바로 (주)휠라인 금동옥 대표다. 20여 년 전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한 동안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한없이 절망스러워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밖에 나와 보니 많은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운전을 하고, 운동도 즐기는 장애인을 보며 금 대표는 재활의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이때 금 대표는 재활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온 한 여고생을 만났다. 그 여학생은 지금의 아내이자 휠라인을 이끌어가는 사업파트너인 김경자 실장으로, 잘생기고 건실한 금 대표에게 매력을 느꼈다. 금 대표도 밝고 풋풋한 소녀에게 끌렸지만, 어린 학생이기에 애써 멀리했다. 그러나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말처럼 7년 후 그들은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서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정식 교제를 하게 됐다. 함께 하며 행복감을 느낀 둘은 결혼을 결심했다. 둘의 사랑에는 아무 장애가 없었지만, 부모의 반대가 컸다. 금 대표를 놓칠 수 없었던 김 실장은 가솔을 감행했고, 1년 후 당당히 결혼 허락

을 받아들였다.

### 한국인의 체형과 장애 유형에 맞는 휠체어 개발

금 대표의 인생은 힘겹게 한 결혼만큼이나 사업에서도 굴곡이 많았다.

장애를 얻고 처음 취직한 곳은 휠체어 판매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수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대신 다치기 전에 배운 자동차 정비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휠체어를 수리해 줬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대로 된 수리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수입 휠체어가 가격은 비싸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장애인의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 대표는 직접 휠체어를 제작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입 휠체어를 사서 구조를 뜯어보며 우리나라 사람의 신체와 장애 유형에 맞는 휠체어를 제작했다. 연구 시작 2년 만인 2001년 정식으로 맞춤 휠체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시 이름 없는 국산 휠체어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여러 번 망하고도 금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구입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판로 개척이 어려워 힘들 뿐이지 제품의 재료와 성능, 1mm의 오차도 없도록 제작한 기술력, 이 모든 것이 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로지 더 좋은 휠체어를 만



휠라인 금동옥 대표와 김경자 실장.

들겠다는 일념으로 공장과 제작에 과감한 투자를 하던 금 대표에게 가처분 명령이 밀려들었다. 아내 김경자 실장은 10년 넘게 일해 온 사회복지사를 그만 두고, 남편에게 날아온 닳은 서류들을 함께 수습하려 고군분투했다. 결국 부부 힘을 합쳐 기업회생절차까지 밟은 끝에 다시 일어났다.

### 스포츠형 휠체어 개발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 바뀐

금 대표는 2007년 일상 활동형 휠체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포츠형 휠체어 제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당시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은 고가에 수리도 어려운 수입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의 사정을 알게 된 금 대표는 스포츠형 휠체어 개발에 매진했다.

처음 내 놓은 제품은 럭비휠체어였다. 럭비는 경기 자체가 계속 부딪히는 종목이라 지속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수입 제품이라 크고 작은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았다. 금 대표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제품을 처음 내 놓았을 때, 선수들은 반신반의했다. 과연 튼튼하고 편할지 의문을 보내

는 선수들에게 금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과 민첩한 사후관리로 화답했다.

그 후 종목을 다양하게 넓혔고, 지금까지 해마다 많은 선수들이 휠라인 휠체어를 탄 채 메달을 거머쥐고 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경기대회에서도 휠체어농구, 럭비, 펜싱 등 거의 모든 종목에서 1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휠라인의 휠체어를 사용했다.

1999년 방콕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후 15년 만에 금 메달을 목에 건 휠체어농구의 경우 대표선수 5명 중 4명이 금 대표가 만든 휠체어를 타고 경기에 나섰다. 금 대표는 선수 개인의 특성에 맞춘 휠체어를 제작했고, 훈련 중 빈번한 고장에도 무상으로 수리하며 선수들을 묵묵히 지원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장애인아시경기대회 사상 최초로 금메달 72개, 종합 2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데는 금 대표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휠라인은 기업의 특색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 경기용 휠체어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하면, 럭비·펜싱·테

니스 등 장애인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

금 대표는 “비용 측면으로만 보면 실업팀 운영이 부담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량을 갈고닦아 멋진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보람 있다”고 말한다.

휠라인 스포츠팀 선수들은 다른 종목 실업팀에 비해 적은 지원금에도 인천장애인아시경기대회에서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투지를 보여줬다.

이밖에 저소득 소외계층에 휠체어를 무상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직원 중 60%는 중증장애인이다. 높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유지하며, 스포츠 휠체어 시장을 개척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휠라인은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또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2012년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을,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제 금 대표는 수출포상을 받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쌓은 기술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그는 “개인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휠체어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휠체어 제작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보고

장애인 공무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분류	No.	품목	유형	분류	No.	목품	유형
정보 접근	1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작업 기구	18	특수작업의자	전유형
	2	점자프린터	시각		19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전유형
	3	화면확대 S/W 및 H/W	시각		20	신호장치	청각
	4	음성출력 S/W 및 H/W	시각	의사 소통	21	골도전화기	청각
	5	확대독서기	시각		22	문자전화기	청각
	6	문서인식 S/W 및 H/W	시각		23	화상전화기	청각
	7	대형 모니터	시각		24	소리 증폭장치	청각
	8	특수 키보드	전유형		25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전유형
	9	특수 마우스	전유형	사무 보조	26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시각
	10	입력 보조장치	전유형		27	음성메모기	전유형
	11	선택장치	전유형		28	책장넘기는 도구	전유형
	12	자세보조장치	전유형		29	수화기 홀더	전유형
	13	특수 S/W	전유형		30	팔 지지대	전유형
작업 기구	14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전유형		31	물건집게	전유형
	15	경사각 작업테이블	전유형		32	필기 보조도구	전유형
	16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전유형		33	원고홀더	전유형
	17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전유형	※ 지원품목은 수요에 따라 확대 예정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장애인공무원 지원근거 관련 조항은 공포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에 담긴 장애인공무원 관련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또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

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편성된 2억 원의 장애인지원 사업예산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편의지원사업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출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업추진과 관련해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성과 제고와 정부 경쟁력 향상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당사자의 손길로 작은부분까지 배려한 휠체어! 휠라인이 만듭니다.

국내 유일의 휠체어 맞춤 제작업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주)휠라인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티타늄 활동형휠체어



고정식 활동형휠체어



FX활동형휠체어

휠체어구입시 점검사항

- 휠체어가 튼튼하고 견고한가?

(휠라인은 럭비선수용 휠체어도 만들고 있습니다.)

□ 휠체어가 부드럽고 나의 몸처럼 잘 움직여 주는가?

(휠라인의 댄스스포츠용 휠체어를 국내 유수의 프로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휠체어가 정교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졌는가?

(휠라인은 휠체어스포츠 9개 종목의 휠체어를 자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휠체어의 사후관리는 용이한가?

(휠라인은 순수 국내기업으로 국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며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 휠체어가 타고 싶은 디자인인가?

(휠라인의 디자인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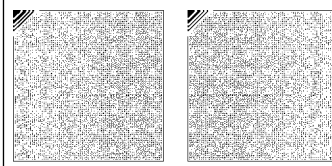
휠라인은 2007년 장애인력비휠체어 개발을 시작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스포츠 휠체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활동형 휠체어를 국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휠체어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작은 에세이

이건휘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어제보다 강한 오늘

## 거친 바람 속에서 단련된 강인한 생명력

1954년 충남 부여군에서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나는 2살에 소아마비를 앓았다. 고열 후 전신마비가 와 병원과 용하다는 곳까지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으나 차도가 없었다. 죽을 것이라 생각해 출생신고도 안 한 채 숨만 쉬고 살아가던 내게 기적이 찾아 온 것은 6살 때였다. 점차 두 팔과 한쪽 다리의 신경까지 돌아왔다.

그러나 그 기적 이후로도 나는 다른이의 도움 없이는 멀리 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뒤늦은 출생신고로 6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도 적응하기 어려워 스스로 학업을 포기했다.

그렇게 사춘기를 맞이했다. 내게 미래는 삶을 포기하는 것, 죽음뿐이었다. 그 때 두세 번 극단적인 행동도 시도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모질게 끊으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친 삶이 계속되던 어느 날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1970년 초, 쓸쓸한 저녁에 부모님께서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께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하셨다. 당분간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고,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하시고 떠나셨다.

지금 생각하니 건설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던 모양이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나는 세 명이나 되는 어린 동생들을 굶길 수 없기에 품팔이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 그때의 시련이 지금의 강인한 나를 만들었다.

## 청춘의 맘 흘려 일군 사업 성공

세월이 흘러 3년 뒤, 공주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살게 됐다. 나는 '부여상회'라는 상호로 첫 사업장을 오픈하고, 동네 새마을 구판장을 찾아다니며 단골을 확보했다. 제법 번창해 2~3년 만에 직원을 채용할 만큼 성장했다. 나는 바쁜 와중에도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을 활용해 독학을 했고, 소년시절 학업을 포기했던 아쉬움을 만회하듯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

사실 난 불편한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이 뒤따르는 잡화상회에서 벗어나

고 싶었다. 내 신체적 조건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직업을 찾다 학원사업을 시작했다. 1979년 7월 29일, 새롭게 시작한 학원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백제웅변학원, 백제입시학원, 백제컴퓨터학원, 백제독서실 등 학원하면 백제학원이라고 할 만큼 공주 제일의 학원으로 우뚝 섰다.

내 인생의 황금기였던 29살 건장한 청년시절, 어느 날 제자가 느닷없이 자그마한 소녀를 데려 왔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귀여운 소녀! 제자의 누나였다. 그녀는 내가 흘리는 땀에서 매력을 느꼈고, 나는 그녀의 귀여운 모습에 애정을 느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 갈 때쯤 그녀의 부모님께서 극심한 반대를 했다. 난 내 불편한 신체조건 때문에 그녀를 잡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완고했다. 우리의 사랑은 커져만 갔고, 1981년 3월 25일, 결혼식을 올렸다. 고등학생처럼 귀엽고 자그마한 아내는 1남 2녀를 낳았다. 아내는 어린 몸으로 시집과 고맙게도 3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 주었다.

## 장애인복지 활동에 뛰어들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즈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살기 위해 바빴던 나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그러나 방황하던 시절 장애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힘겹게 싸워 이겨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나와 같은 이들을 대변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1990년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충남지장협)에 들어왔다. 그런데 조직은 전무하고, 회원 하나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미약한 힘이라도 뭉치면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밤낮 가리지 않고 조직화에 전념했다.



199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 가지에 몰입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인 나는 학원사업까지 정리하고 협회 일에 전념했다. 그때부터 강력하게 구성한 조직력이 지금의 기틀이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뛰던 와중에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 지방자치선거에서 조직과 능력을 인정받아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충남 도의원 비례대표를 배정 받았다. 당을 대표해 라디오 연설, TV 연설, 정당 연설을 하러 각 지방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충남지장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은 일이다. 그것을 계기로 현재는 장애인복지관 5곳을 비롯해 총 12개의 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와 충남지장협이 흘린 땀을 바탕으로 이제는 충남의 장애인복지가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내 인생에도 최대 고비가 찾아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펴 나갈 즈음, 행정에 대해 무지했고 융통성을 부린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다. 모두 내 맘 같은 줄 알고 베푼 일들이 결국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오점으로 남았다.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3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그 힘든 시간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오로지 내게 달린 일이었다. 역울함만 토로하기 보다는 자신을 반성하며 상대를 이해하려 했다. 또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장애인복지의 청사진을 그렸다.

## ‘원칙을 지키는 삶’ 강조

그 후로 충남지장협에 돌아와 지금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달려온 이건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

까지 몸담고 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한지 25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았다. 사비를 털어 장애인복지시설인 삼취복지재단을 설립한 일, 그곳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실비시설, 보호작업장, 단기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해 장애인들과 함께 보금자리를 만들어왔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나 자신은 열심히 살았노라 자부한다.

이 시점에서 전국의 장애인지도자분들께 부탁할 것이 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라. 뒷사람은 아랫사람을 용서하지만 아랫사람은 뒷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과 무능이 있어도 이해하고 다독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부족함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 또 새벽에 일어나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공부를 해야 하며,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나는 배우고 익히는 점에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어제와 오늘도 쉬 없이 충남의 장애인복지와 협회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 제2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개최

## 장애 미술가의 작품 판로 개척에 역점

제2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가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됐다.

장애 미술가의 작품 판로 개척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충현, 이하 장미협)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린 전시장에는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아트페어는 미술 관련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장애 미술인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 75명의 작품을 전시했다. 작가들은 전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예술 감독, 전문 큐레이터와 공동으로 작품 판매와 홍보를 진행했다.

아트페어의 주 전시인 장애미



제2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술작가 페어전 이외에도 특별전으로 진행한 청각장애인 일러스트 작가 구경선 씨의 아틀리에, 해외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글로벌 아틀리에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 문학과 미술과의 콜라보 시화전, 스페셜 아트살롱 등의 다양한 전시 공간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별도의 ‘가가호호(家家好號) 착한경매’와 관람객 참여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장미협 소장 작품과 참여 작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경매도 열렸다. 출품작 이외에 별도의 경매용 소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장애 작가들에게 판로 개척 기회를 제

공했다.

한편 장미협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평소 미술품에 대한 일반

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6.3%에 달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미술품을 소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은 고가’라는 이유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복사본이나 인쇄본으로 만족해서’가 8.6%였다.

또 장애인의 창작활동에 관한 질문에는 73.8%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창작활동은 같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 작가의 특정 상황보다 작품의 예술성과 감수성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미궁주혜 · 정도운의 콜라보 강남장복, ‘두 작가의 즐거움, 사람展’



전시회 개막식에서 그림 설명을 하는 미궁주혜 작가.

강남장애인복지관(관장 허명환, 이하 강남장복)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갤러리 이양에서 미궁주혜(강주혜), 정도운 작가의 ‘두 작가의 즐거움, 사람展’을 열었다.

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을 담은 필명 ‘미궁(美育)주혜’ 작가는 2003년 교통사고로 뇌병변과 시각장애를 입어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이후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중도장애를 극복했다.

작가는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성으로 마

음을 물들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시장 상인, 미용실 원장, 지하철 승객 등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바꿔 재탄생시킨다. 작가가 실제로 접하는 장면을 이야기로 연결해 한 장면에서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그림이 특징이다.

미궁주혜 작가는 개막식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활인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라면서 “많은 분이 이 그림을 통해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긍정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팝아트 감성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한 정도운 작가도 개막식을 찾은 관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자폐성 장애인인 정도운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통점을 최근 연예계 이슈와 엮으며 여러 각도에서 재구성한다. 작가는 뮤지션을 가족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존재하는 인물로 인식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2015년 신작 ‘TV 가수 오디션 시리즈’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작품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심사위원과 TOP3 도전자 등 다양한 출연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인물들의 사진 자료를 스스로 선택한 뒤 상반신 인물 부분의 특징을 살려 표현했다. 특히 뮤지션들의 다양한 머리색은 작가가 생각하는 그들만의 색이 묻어난다.

강남장복 시각예술담당 석예라 팀원은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접촉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러한 관계와 정보 속에서 본인이 취하고 싶은 것만 보는 개인주의를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두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 여성장애인 오카리나 음악교실 개강

포항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 전문강사 초빙



포항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오카리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는 5월 19일 오카리나 음악교실을 개강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이번 음악교실은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포항시지회가 지난해 시낭송 교실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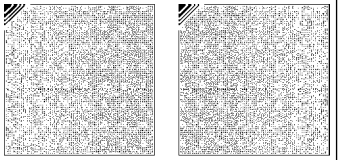
수업은 월 2회 전문강사를 초빙, 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기본단계인 운지법 및 악보 보는 법부터 수업을 진행해 초보자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 포항시지회는 단계별 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의 연주능력이 향상되면 아마추어 대회 참가 및 오카리나를 활용한 봉사활동, 콘서트 등

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 홍세기 대리는 “오카리나 음악교실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감수성 및 집중력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여성자립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화 교육, 인권지킴이단 활동,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4일간의 열전

## 경기도 최다메달...강정은 수영 3관왕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5월 22일 나흘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이란 슬로건 아래 5월 19일 제주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1477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대회 첫 출전으로 관심을 끈 세종특별자치시는 수영, 배드민턴, 디스크골프 등 6개 종목에 48명을 파견했다.

대회 결과 시·도별 성적은 경기도가 143개(금 51, 은 39, 동 53)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고, 울산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선수별로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수영 2관왕에 올랐던 강



제주도에서 열린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은(대구, 16) 학생이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3관왕을 기

록했다. 역도의 임주성(광주, 15) 학생 역시 지적장애 부문 -50kg급

에서 3관왕에 올랐다. 또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낸 청각장애 채예지(경기, 14) 학생도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리적 여건, 이동 편의와 장애인 체육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수들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경관을 만끽하며 자신의 꿈을 펼치는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인 5월 22일 제주포럼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적장애 축구 결승전(제주:부산)이 열리는 강창학종합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 아산스마트라이노 우승 창단 2년 5개월 만에 정상 등극

아산스마트라이노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단장 이창호, 이하 아산팀)이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5회 KPH 강남베드로병원배 장애인아이스하키팀대회’에서 우승했다.

2013년 1월 5일 창단한 아산팀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 유일의 장애인 아이스하키팀이다. 아산팀은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상대인 서울

팀과 겨뤘 3:2로 승리하며 접전 끝에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서 펼쳐진 경기팀과의 결승전은 물오른 공격력으로 맹공을 펼친 아산팀이 4:1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창단 2년 5개월 만에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주말마다 성남 탄천빙상장을 오가며 훈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

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팀의 주장인 박상현 선수는 “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복지관에 감사하며, 더욱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습하겠다”고 밝혔다.

아산팀은 우승 외에 MVP까지 배출해 박수를 받았다. MVP의 주인공은 박우철 선수로, 안정된 수비력을 펼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밖에 아산팀은 우승이라는 성적표뿐 아니라 경기내용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산스마트라이노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이 창단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아산팀은 창단 10년이 넘는 서울과 경기팀을 상대로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 다른 팀들을 놀라게 했다. 대회 전문가들은 아산팀의 팀워크가 타 팀에 모범이 될 정도로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골 결정력과 상대의 속공에서 드러나는 수비의 문제점은 앞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아산장북 관계자는 “아산스마트라이노팀은 앞으로 아산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문체부 장애인실업팀 창단

###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키팀을 시작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패럴림픽)를 대비해,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한다.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중 우선으로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이하 공단)

에 장애인 스키팀을 창단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개최할 만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나, 그동안 실제 성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는 2014 소치동계패럴림픽에 국

가대표 27명이 참가해 4개 종목에서 땀을 흘렸지만, 메달을 단 한 개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동계종목의 열악한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게 됐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장애인실

업팀은 전국에 50팀이 있다. 공공기관 2팀, 일반기업 5팀, 지자체 25팀, 시·도장애인체육회 18팀이 있으며, 소속 선수는 203명이다. 전체 986팀에 2만 7202명의 선수가 등록된 비장애인 실업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문체부는 이번 장애인 실업팀 확대를 통해 선수들이 훈련 기회를 얻고, 직업선수로서 경제적 안정감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실업팀 육성이 장애인스포츠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직

업적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에 크기에 공공기관의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일반기업으로도 점차 퍼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개최식에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촉감 전달하는 의족 개발

## 자갈 · 모래도 느낄 수 있어



오스트리아의 에거 교수가 개발한 촉감을 전달하는 의족. ©AFP

세계 최초로 생생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의족이 탄생했다.

6월 8일 프랑스 AFP 통신은 오스트리아 빈의 휴버트 에거 린즈대 교수가 실제와 유사한 감각을 느끼며 환상통을 막을 수 있는 의족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에거 교수는 먼저 절단부위에 남아 있는 말초신경을 허벅지 조직에 연결해 피부표면에 가까이 배치했다. 의족 발바닥에 있는 센서가 절단부위에 자극을 전달하면 이 말초신경이 촉감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의족 수술을 받은 울프강 랭거(54)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2007년 뇌졸중으로 인한 혈전으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그는 6개월간 이번 의족 개발의 임상실험자로 투입됐다.

랭거는 “더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걷지 않아도 된다”며 “이제 내가 자갈 위를 걷는지, 콘크리트나 잔디, 모래 위를 걷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걸을수록 균형감과 안정성이 더욱 향상돼 의족을 달고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었다. 심지어 등산도 가능했다. 걷는 동안 랭거는 거의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았다.

에거 교수는 의족 착용자가 걸

을 때마다 작은 센서장치가 뇌에 신호를 보내 실제와 유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장애인은 발의 피부 감각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지만, 절단 환자들은 이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신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이 살아 있으므로 센서장치가 뇌에 ‘여기 발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이 의족은 절단 환자들이 경험하는 환상통을 제거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랭거는 절단 후 지속해서 절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일반 의족으로 걸을 수 없었다. 또 밤에도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어 모르핀

에 의존해 왔다.

에거 교수는 “뇌가 이미 제거된 다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부위에서 정보를 얻으려다 실패하면서 환상통을 유발한다”며 “랭거의 경우 의족이 절단 부위에 다시 감각을 전달해주며 환상통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리나 팔을 절단한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고도 말했다. 단지 팔다리를 잃어버렸을 뿐, 의족·의수를 통해 독립적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족·의수 가격은 1만~3만 유로(약 1,250만~3,850만원) 정도다. 에거 교수는 의족·의수의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미국 자폐증 학생, 사법시험 합격

### 특수교육 법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

미국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학생이 사법시험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샌디에이고 지역방송 NBC7은 자폐성 장애인 에릭 웨버가 5월 15일 처음 치른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고 있던 웨버는 자신의 합격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눈물 때문에 노트북 키보드가 젖어버렸

다”고 말했다.

3살에 자폐증 진단을 받은 에릭 웨버는 5살 무렵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서 지냈다.

에릭의 모친 샌디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는 지금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다”고 떠올렸다.

샌디는 아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세상에 알려진 양육 방식이 많지 않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아들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그 모습을 본인에게 보여주고 다양한 표정에 대해 가르쳤다. 또 샌디는 아들과 함께 지역 의원의 선거 활동까지 참가했다. 이는 모르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가며 그 사람들의 표정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모친의 노력으로 에릭은 8살이 되던 해 주위에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무렵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폐성 장애인 에릭 웨버. ©NBC7

부친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에릭은 흔들림 없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한 육상으로 ‘스페셜 올림픽’에도 출전하는 등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웨버는 앞으로 특수교육 법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재즈 가수 맨디 하비. ©YouTube

수술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은 여성이 재즈 가수가 됐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던 미국

의 여고생 맨디는 어느 날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돼 후유증으로 귀가

## 재즈 가수로 데뷔한 청각장애인

### “들리지 않지만, 들려줄 수 있어요”

들리지 않게 됐다.

가수의 꿈을 키워 온 여고생 맨디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슬픔에 빠진 것도 잠시, 그녀는 꿈을 위해 곧 기운을 차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맨디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력 끝에 재즈 가수로 데뷔하기에 이르렀다. 재즈바에서 청아하게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관객들은 가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노래를 부른 후 장애에 관해 알게 되면 더

욱 박수로 환호한다.

재즈 가수로 데뷔한 맨디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몽클해진다”는 평이 감명 깊었다고 밝혔다.

맨디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재즈바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하고 있다.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친구를 사귀고 싶으세요?

##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낸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만족과 기쁨, 행복을 얻기도 하고 갈등과 괴로움에 빠지기도 한다.

누구나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장애로 인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언어장애 4급 장애인인 김모 씨는 7개월 정도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우리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는 입사해서 총무팀에 배치됐지만, 상사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회사생활이 힘들었다고

했다.

장애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더듬기는 했지만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동료들은 업무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점심식사 때도 왕따를 당해 혼자 먹었다. 결국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카네기 인간관계론(데일 카네기 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실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을 꼽았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

드 아들러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상대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인생길을 걷게 되고, 타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끼친다”고 했다.

두 번째 방법은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웃는 얼굴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이름을 기억해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과 의미 있는 여운을 주는 것이다. 이름은 개개인을 차별화하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그 사람만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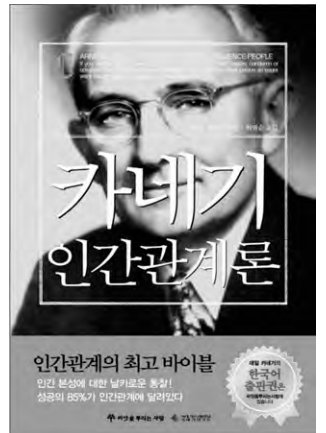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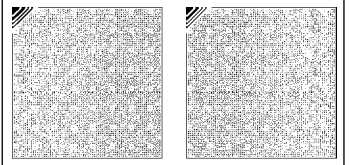
네 번째 방법은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잭 우드포드는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들어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다.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도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조용히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유순해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상대가 관심을 둔 것을 화제로 삼는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대가 누구이던 그 사람에게 적합한 화제를 풍부하게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방문자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좋아할 분야를 미리 공부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 방법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입에 발린 칭찬이나 찬사는 듣고 싶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카네기 인간관계론』 ⓒ씨앗을 뿌리는 사람

어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에는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인간관계 맺기를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진심어린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장애인이 먼저 마음을 열고 대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 자산형성지원제도

**Q) 저소득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A)** 저소득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으로는 희망키움통장제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해외의 개인발달계좌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저소득층의 저축을 설명하는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Saving Theory)’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Q) 희망키움통장이 무엇이며, 구체적 활용방안이 궁금합니다.**

**A)** 희망키움통장에는 희망키움1통장, 희망키움2통장, 내일키움통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키움1 통장의 경우 지원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수급가구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27만 원으로 3년 만기 탈수급 시 3인 가구 최대 2,000만 원(평균 1,3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 제한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망키움2통장의

경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입니다. 최근 1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으며, 일해서 버는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이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씩 1:1매칭 지원해, 3년 만기 시 720만 원 수급이 가능(+이자)합니다. 본인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 적립금은 앞의 희망키움1통장과 같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이 있을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일키움통장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Q)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희망키움통장과 한 종류인 내일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매월 실제 12일 이상 근무)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선택사항)을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 또는 내일키움수

익금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일키움장려금은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 A형), 1:0.3(사회서비스 B형) 매칭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은 사업단별 차등지급금(월 최대 15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즉 내일키움장려금 월 1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으로, 3년 만기 취업(일반시장 취·창업)과 소정의 교육(수)시 최대 1,300만 원(평균 1,1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적립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이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키움통장 1, 2의 경우 신청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단,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 간담회

## 대기업 인사부서장 대상 고용 확대 촉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27일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업의 30대 기업집단 및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인사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4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54%인데 비해 정보통신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41%, 교육서비스업은 2%, 전문과학기술업

은 2.08%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엔씨소프트,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표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웅진과 법무법인(유)윤춘의 장애인 고용 성공 사례를 청취하고 경험과 노하우

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눴다.

공단 이재구 고용지원국장은 “정보통신, 교육, 전문과학기술 분야의 장애인 고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서 달라”고 말

했다. 이어서 “공단은 고용이 저조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고용이 저조한 업종별로 인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서 12일에는 금융보험업 인사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기술지원 과정 협약을 체결해 관련 훈련과정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교육 훈련 과정 중 6월 3일 진행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 7명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서울맞춤훈련센터는 앞으로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국제자격증을 취득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자격증취득 의무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맞춤훈련센터 장애인, OCJP 전원 합격

## ‘국제자격증취득 의무제’ 운영 방침 내걸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는 소속 재학생 7명이 국제공인 자바전문가 자격시

험(OCJP)에 전원 합격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서울맞춤훈련센터는 장애인

이 직업훈련을 더욱 쉽게 받도록 돕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맞춤훈련센터는 올해 1월 삼성 SDS의 자회사 오픈한즈와 IT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한국장애인대표단이 방문에 SDGs 수립 및 이행에 장애를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제언을 전 세계에 던졌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 정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 제도는? 정부는 이 제도를 중증·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 - 힌트 -

정답은 기사 속에 있습니다.

### - 독자의견 -

새보람 5월호에서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라라톤대회 행사 관련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편의증진면의 쉽고도 전문적인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또 일부긴 하지만 종교재단의 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동감합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①대기업에서 장애인고용에 덧붙여 자부담으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②편의시설처럼 국고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정부와 운영업체 간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극단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없어질 것입니다. - 김현정

신문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알게 돼 감사합니다. 기고 글을 통해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열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마르셀 혹은 서울시각장애인경기대회

### 당첨자

서울 영등포구 김현정  
서울 도봉구 홍성열  
경북 칠곡군 김해경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의 화장을 원료 기준으로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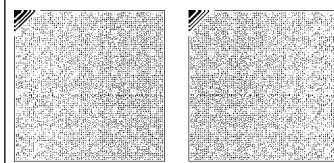
천연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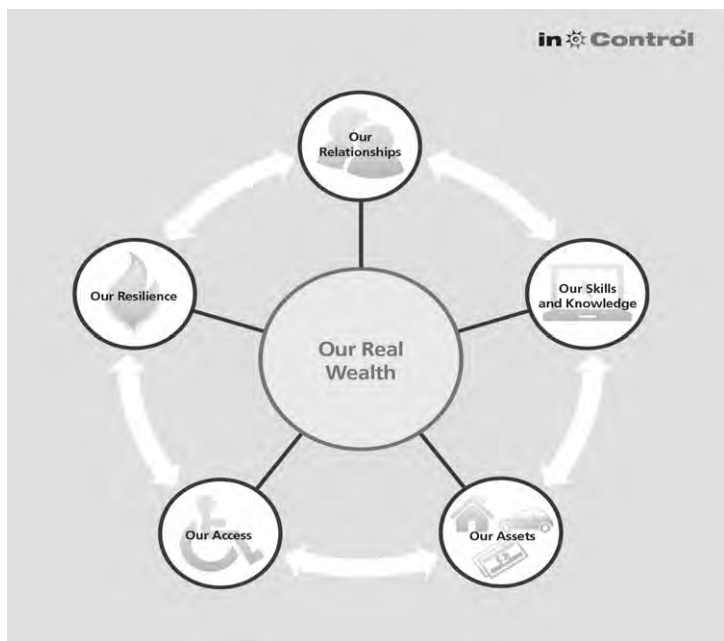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개인예산제도와 자기주도 지원

##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박미현 과장



독립적인 사회적이업인 인컨트롤의 자원분배 시스템. ©인컨트롤

###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선택

2009년 영국 버밍엄대학교 보건 및 사회복지학 교수인 존 글래스비와 동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사업학과 교수인 로즈마리 리틀차일드가 출판한 영국 서적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중 ‘개인예산제도와 자기주도 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사회서비스에 대해 시사경제용어사전(2010. 11.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낙

오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드바인(E. 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보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했고,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인프라를 가진 민간 제공기관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는 이용인이 양질의 저비용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수요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영국에서 출판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는 시작단계에서 욕구충족을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한다. 즉 금액에 대해 얼마만큼의 통제권을 가질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전체를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개인예산제도는 2003년 지적장애인 서비스 영역에서 먼저 시작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전략책서인 ‘사람을 가치롭게(2001년 21세기 지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서는 권리, 선택, 자립, 통합이라는 4가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책서는 지적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고, 선택·사회통합·자립을 촉진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 새로운 사회 돌봄 방식, 자기주도 지원

이와 맞물려 자기주도 지원과 같은 새로운 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했다. 이 방식은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과 개인이 자신의 지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기주도 지원은 총 7단계로 이뤄진다.

▲단계1. 개인예산구성 : 인컨트롤의 자원분배시스템을 사용해, 개인은 자신에게 분배된 재정, 즉 개인예산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예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 결정한다.

▲단계2. 지원계획 :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얻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한다. 이 과정에서 옹호인, 중개인 등 타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계3. 동의 : 지방정부는 개인이 지원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도움을 주고, 계획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개인이 필요한 것을 모두 표현했는지 확인한다.

▲단계4. 개인예산관리 :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개인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

▲단계5. 지원구성 : 개인은 법적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유일한 제한은 국가가 적법하다고 여기는 욕구와 합법적인 서비스에만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계6. 삶의 영위 : 개인은 예산을 사용해, 지역사회의 삶과 역할 측면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계7. 검토와 교훈 : 정부는 개인의 만족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얻은 교훈을 공유한다. 또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 사회 돌봄에서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영국에서 2008년 자기주도 지원에 참여한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삶의 질 76%, 선택과 통제 72%, 지역 사회 참여와 기여 64%, 개인의 존엄성 59%, 원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55%, 보건 및 복지

47%, 경제적 만족도 36%, 가정에서의 안정감 29% 등이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예산제도는 아직 규모가 작고, 연구 결과도 최근 것이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구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돌봄 신념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많다. 자기주도 지원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참여자가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쉬우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변의 자원과 신뢰를 형성하게 돕는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개인에게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예산배주 및 사용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장애인이 직접 욕구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 중개인(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안내할 것인가?

영국의 서비스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모두 이용해 본 줄리아 윈터는 ‘공동체 돌봄 생방송2008’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이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떤 선택도 없고 삶에 대한 통제권도 없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현금지급제도는 사춘기청소년처럼 느껴졌다. 돈을 갖고 가게에 갈 수 있지만, 목록에 적혀 있는 품목만 구입해야 하고,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다시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예산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된 느낌이다.”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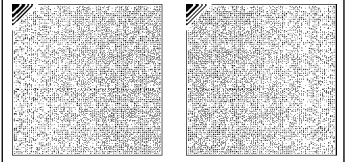
존 글래스비·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한국장애인재단, 2013 등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6호 2015년 6월 29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dd.or.kr E-mail : news@kapd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지마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결코 가볍지 않은 공정, 결코 좌시하지 않을 부정

우리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요즘도 가끔 지상파 방송이나 중앙 또는 지방일간지에 우리 회원들의 이름이 이런저런 사건들로 오르내린다. 물론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우리 회원이라는 것이 문제다. 일부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뼈먹을 게 있으면 먹고 나가겠다는 속셈이 눈에 선하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팔아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전매하고,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을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아먹는 일도 있다. 후원금 성격이 모호한 대가성 금전을 챙기고, 우리 협회의 헌법과 법률인 정관과 제규정을 무시한 채 사익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人事는 萬事라 하여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충분히 자격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협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런 것은 뒷전이다.

그런 사람들은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해 부당한 인사권을 남용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행동을 한다.

우리는 이들을 협회 내부의 그 물망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워 급기야 소송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경이다. 끝나지 않는 소모적인 이 소송에 언제까지 우리 협회가 휘둘려야 할까?

우리는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을 해치는 그 동안의 모든 관행과 그러한 관행에 물든 사람을 버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 자율적인 개선이 쉽지 않으면, 강제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 협회와 회원들은 지체장

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협회 임원진이나 직원은 모두 개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말고, 공평무사하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롭게 강력한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우리 회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당면하는 공정과 부정사이의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세우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해 무엇이 우리 협회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윤리강령 제정 또는 윤리규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년이면 창립 30년째에 접어든다.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이나 변했을 시간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명확한 가치기준을 설정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에 앞장서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는 물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앙회 또는 지역협회 차원에서 세숫대야 손 씻기 퍼포먼스나 클린지장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크고 작은 이벤트를 벌여왔다. 하지만 아직

### 새보람 칼럼

조문호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

## 경제만큼 사람도 중요하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전망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부채가 1,200조를 넘어섰다. 2014년 한해 총 세입이 298조 7,000억이니 4년 동안 아무런 지출 없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OECD는 2014년 11월에 내놔던 한국의 GDP 전망치를 3.8%에서 3%로 하향 조정하며 “높은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원화 강세, 대중(對中)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 하

락 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복지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장애인계만 보더라도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10명 중 4명(43.3%)이 65세 이상이며, 장애인가구의 24.3%가 1인 가구다. 또 빠른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관심이 소득보장에서 의료보장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만성질환 보유, 우울감 경험 등이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증장애인일수록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데 국가는 이와 반대로 복지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2014년 1인당 GDP 순위에서 5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보면 과

거에 복지국가를 지향했거나 지금도 복지국가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끊임 없이 투자해야 한다. 안정적 고용을 창출하는 복지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고 중·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해 꾸준한 수요를 유발해야 한다. 실업에서 재취업에 이르는 과정의 질을 높여 국민의 소비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과 정부, 서로 간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감세와 복지 확대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세수가 적다는 것은 사회 공공적 투자의 필연적 감소를 부른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 진실한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양의 재원을 집행하며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한다면 세율이 높더라도 국민은 국가에 무한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복지재정효율화는 과감한 사회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없이 효율화만 강조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복지는 당사자의 역량강화나 기업의 일회적 후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역량강화나 기업의 사회공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에는 미칠 수 없다. 우리 선

배들이 국가경제 부흥의 일념으로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했듯이 제도를 만들고 투자해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것이다.

끝으로 경제만큼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주변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공공기관과 재단 등에서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약탈과 인권유린 등이 아직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지원기관에 맡겨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미약하지만 우리 스스로 동지들과 이웃들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 협회의 두 번째 신조는 ‘우리 이웃에 봉사한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소비자로서의 당사자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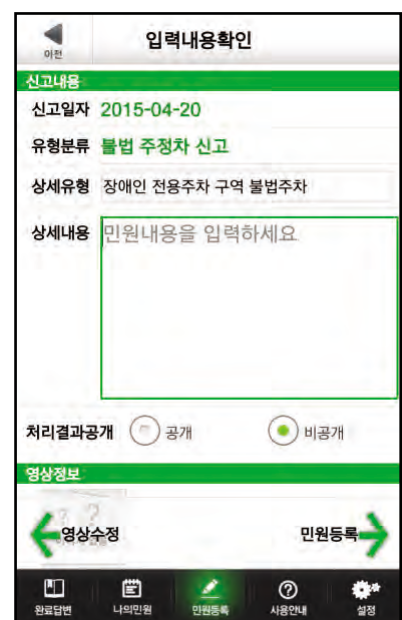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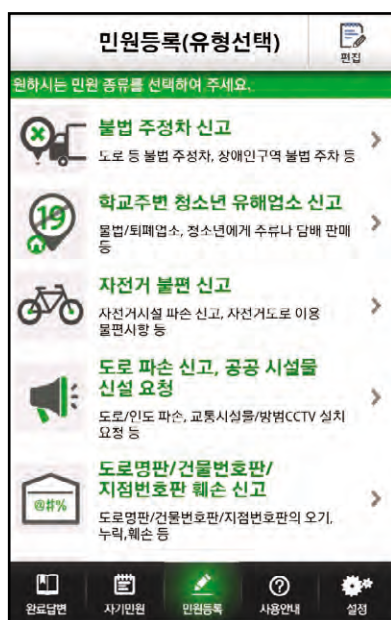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누군가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①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 ②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③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회만 인증을 받으면 민원인정보를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민원유형입력창에서 불법주정차신고를 누릅니다. 자동으로 현재의 민원위치정보를 파악해 줍니다.
- ⑤ 사진첨부를 클릭해 사진을 촬영합니다.(총 3장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⑥ 민원상세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을 등록합니다.
- ⑦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ccess/use/moving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ATAC Amen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